

## <문화> 각 주별로 준비되고 있는 게임 관련 법안들

2005년 여름을 강타한 'Grand Theft Auto'를 둘러싼 폭력성과 선정성에 대한 논란은 등급체계에 대한 논란까지 번져나갔다. 실제로 캘리포니아에서 계속해서 제시된 법안들은 연령등급제 자체의 심의를 논하는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었다.

여하튼 계속되는 수정헌법 제1조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헌논란에도 불구하고, 미국 전역에서는 주 단위로 게임관련 폭력성에 관한 법률안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여기서는 이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한다. 특히, 2006년 들어서면서 유타 주에서 제기한 매더슨 법안의 경우에는 기존의 법안들과는 달리, 연령등급제의 문제점을 제기하기보다는 구매자의 신분증 확인이라는 새로운 카드를 내놓았다.

2006년, 게임의 폭력성과 어린이들의 보호에 관한 논란들이 어떻게 이어져나갈지를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유타의 게임 관련 법안

매더슨은 'mature', 'adult only' 비디오게임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신분증을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법안을 준비 중에 있다. 미국 공화당 의원인 짐 매더슨은 연방 정부가 'M'과 'AO'등급을 받은 비디오게임들을 미성년자 어린이들에게 판매하는 소매상들을 범죄자로 처분할 것을 요구했다.

D-Utah주의 의원인 매더슨은 미국 내에서의 수백억 달러대의 산업을 명백하게 성적이거나, 폭력적인 내용을 가진 것으로 규정하고 비디오게임들을 통제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아니라는 자신의 입장을 명백히 밝혔다.

오히려 그는 소수자들에 의한 하드코어 게임들의 구매를 금지할 것을 시도하고 있다. 즉, 그는 게임의 내용을 통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해당 게임들의 구매를 금지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자 했다. 즉, 기존의 법안들이 비디오게임 소매상들에게 게임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면, 매더슨 법안은 반대로 구매자들을 확인하는 과정을 도입하도록 그 금지의 방법을 변화시킨 셈이다.

“게임산업은 이미 자신의 등급 시스템을 지니고 있다.”고 매더슨은 말했다. 그리고 이것은 현재의 영화 등급 시스템과 매우 유사하다는 점을 그는 인정하고 있다. 그는 비디오게임 등급 시스템을 그의 새로운 법안과 결합시켜서 사용하고자 하고 있다. 지난 수요일에 Deseret Morning News의 편집장과 가진 의원 인터뷰에서 아직 소개되지 않은 자신의 법안에 대한 개요와 입장을 제시했다.

“나는 'M'이나 'AO'등급의 게임들 중의 어떤 것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구매자들이 반드시 자신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소매상들은 이를 확인하도록 해야 한다고 의회에서 발언할 계획이다.”라고 매더슨은 말했다. 또한 그의 법안은 미국에서 판매되는 비디오게임들은 박스에